

인터뷰

“인류 공영의 이념...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토록 노력”

- 아시아인 최초로 FIDIC 차기 회장 피선, 가입 30년 만에 국제기구 수장 배출 쾌거 -



이재완 (주)세광종합기술단 대표이사 회장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차기 회장

“엔지니어링은 고급 두뇌를 필요로 하는 지식 집약 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입니다. 시공의 경우 20억원당 1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데 비해 엔지니어링은 이보다 20배 높은 1억원당 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9월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100년 역사상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수장에 선출된 이재완 세광종합기술단 회장은 선진국의 척도로 엔지니어링을 꼽았다. 엔지니어링이야말로 선진국만이 갖는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 영국 등 6개 나라가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역대 FIDIC 회장 또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만 맡아왔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그것도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의 대표 협의체인 FIDIC의 차기 회장으로 그가 선출된 것을 건설업계의 역사적 사건이라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세대 토목공학 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재완 회장은 항만 엔지니어링 분야의 권위자로서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수석부회장,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지난달 24일 그를 만나 향후 포부와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인터뷰

스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FIDIC에서 지금까지 제정·보급한 6개의 국제표준 계약조건들이 WB, ADB 등 다자개발 금융기구(MDB)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인 엔지니어링 & 컨설팅 분야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한지요?

지난 7월 말 발간된 ENR지에 따르면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은 1,422억 달러(2012년) 규모로 연평균 8.2% (2006~1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고부가가치 영역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7개 기업에서 금년에는 11개 기업이 세계 225대 설계회사 순위 에 포함되었고, 시장 점유율도 1.2%에서 1.4%로 조금 씩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의 경우 실시설계 분야는 선진국과 격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종합적 사업관리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는 약 70% 수준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로비나 가격 경쟁을 무기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다 보니 수주하기도 어렵고 수주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공 분야에 비해 국내의 FEED 분야가 뒤처진 원인은 무엇인지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해외 진출 경험 덕분에 국내 건설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세설계, 시공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체 프로젝트 단계에서 엔지니어링, 특히 핵심 영역인 타당성조사, 개념 및 기본설계(FEED), 종합적인 사업관리(PMC)에서는 아직도 많이 취약하여 수행 실적(Track Record) 또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원인으로서는 핵심 영역에서의 기술 역량 부족, 즉 수주를 좌우하는 핵심 원천 기술 부족과 함께 외국어 구사 및 기획력을 겸

비한 글로벌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국제 공공 금융 기관 관련(MDB) 시장 또는 각국 재정사업에서의 Track Record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사업과 급증하는 민자 사업 등에 안주한 채 무한 경쟁 시장인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국내 엔지니어링 역사도 반세기가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했던 기술력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제는 해외에서도 선진국의 협력사나 하도급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법률이나 제도, 그리고 관행들이 아직도 선진화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극복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선진 엔지니어링사와의 적극적인 컨소시엄 등 협업, 나아가서는 M&A 등을 통한 경험 축적과 인력 및 실적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도공, 수공, 한전 등 공기업과의 동반 진출(PPP)을 통한 시너지효과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PC 대기업 등 건설사들과 분야별 건설한 중견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한 협업 체계 활성화를 통해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현대 문명은 엔지니어링산업과 엔지니어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엔지니어링산업이 고용 효과가 높은 고부가 지식 산업, 골똥 없는 선진 산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엔지니어링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과 자성,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CERIK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